

Fukushima NOW

Vo.6 (2018년 2월 발행)

(공재) 후쿠시마현 국제교류협회에서는 지진 재해 복구를 향한 활동과 국제교류·협력단체 활동, 외국출신 현민의 목소리 등, 후쿠시마현의 '지금'을 다국어로 알리고 있습니다.



※번역판은 본 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Voices from Fukushima

일본에서의 생활은 놀라움의 연속

프랑시스·아미모·오코티씨(케냐출신·니혼마치시 거주)



나이로비의 휘트니스클럽에서 인스트럭터로 일하고 있을 때 JICA에서 파견된 지금의 아내와 만나게 되었고, 2007년 아내가 일하고 있는 니혼마치로 왔습니다. 2012년 3월부터 JICA 니혼마치 훈련소에서 영어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오기 전의 일본에 대한 이미지는 세이코시계,

토요타자동차, 캐논카메라 정도였지만 직접 일본의 발전된 모습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신칸센, 고층건물, 새차처럼 깨끗한 차들, 깨끗한 거리와 화장실, 신선한 야채와 과일, 유니폼을 입고 일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제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동일본대지진 당시 아파트에 혼자 있었습니다. 케냐에서는 지진을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놀라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눈 앞의 건물이 흔들리고 곧 붕괴될 것만 같았습니다. 잠시 진동이 멈췄을 때 집으로 들어가 여권과 돈을 들고 따뜻한 옷을 입고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진이 잠시 멈춘 것 같다 할 땐 다시 집으로 들어가고 긴급지진속보가 울리면 다시 밖으로 나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후 뉴스에서 해일 영상을 보고 너무 놀라 이웃에게 니혼마치에도 해일이 오냐고 물었고 니혼마치는 괜찮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지진 후에는 여권과 땅콩, 방한복, 돈을 가방에 넣어 만일을 위해 준비했지만 그것도 1개월 정도였습니다.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에는 다른 현으로 피난갈까도 생각했지만, 안전하다는 일본정부와 일본의 기술을 믿고 현 내에 머물렀습니다.

후쿠시마는 조용하고 살기 좋은 곳입니다. 도로가 복잡하지 않고 집세도 저렴하며 야채와 과일도 신선합니다. 최근 제한구역이었던 나미에마치에 쇼핑물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조만간 놀러갈 생각입니다.

어릴 적 동경이 현실로

야파커·티러넌씨 (태국출신, 후쿠시마시 거주)

25살 때 결혼으로 일본에 왔습니다. 처음엔 나가노현에서 5년간 살고 그 후부터 후쿠시마현에서 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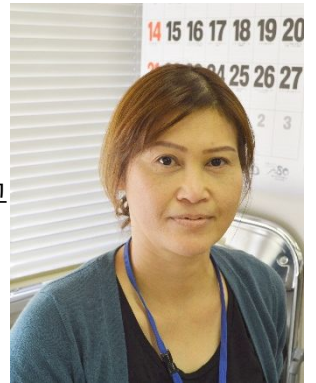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날은 마침 일이 없는 날이라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려고 차에 탄 순간 흔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원전사고가 발생했지만 전 후쿠시마에 남아 있었습니다.

태국 대사관은 치바현에 있는 태국 철을 피난처로 확보하고 귀국희망자에게 편도 항공기 티켓을 준비해 주었다고 합니다.

작년 5월부터 일하고 있는 후쿠시마현청에서는 통역과 번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LINE으로 태국사람들과 소통하며 'We Love Fukushima'라는 Facebook에서 후쿠시마현 관광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통역은 일본어의 존경어가 어렵지만 도전할 때마다 보람을 느낍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언어를 사용하는 지금의 일은 저에게 잘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위 분들도 모두 친절해서 늘 가족같이 느껴집니다.

태국에서 보낸 10대 시절, 집에 걸려있던 달력의 키모노를 보며 '예쁘다'며 막연히 동경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저는 키모노가 일본의 것이라는 것도 몰랐고 시간이 지나면서 동경했던 마음도 잊혀졌습니다. 일본에 와서 키모노를 본 순간, 그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일본과 인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는 어디를 가도 좋은 곳입니다. 봄이 되면 현내 각지에서 다양한 꽃을 즐길 수 있습니다. 기타카타닛쉴선의



▲직장 동료와 함께

시다래벚꽃과 타다미강의 제 일 교우료우, 히라타무라에 있는 쥬피아란도 히라타노시바벚꽃 등이 볼 만하니 꼭 많은 분들이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국 가정요리로 전승하는 문화

코오리야마시 중국출신자들의 커뮤니티 '일중문화 후레이아노카이~코우후쿠'는 일중 문화교류와 지역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국제교류 이벤트와 중국어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정월에 먹는 요리 '스이자오(물만두)'요리교실을 열어 20 명의 참가자가 모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돼지고기와 양고기를 넣은 물만두를 만든 후 건조두부와 하루사메사라다, 계란스프, 중국 전통과자 사치마를 먹으면서 중국 문화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만두를 응용해 과일과 견과류를 넣은 달콤한 만두와 두부를 사용한 헬시만두 등도 소개되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은 3월 10일(토) 입춘요리 '춘빈'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상세내용은 당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http://www.worldvillage.org/fia/news/details.html?id=2191>



▲일중문화 후레이아의 카이 코우후쿠 대표 리씨와 강사 스키씨

쌀만들기부터 시작된 일본술, 드디어 완성!

후쿠시마시 이이자카마치를 흐르는 스리카미강물로 재배된 술쌀 '고하쿠만고쿠'를 시내의 주조장에서 주조한 술 '쥬마이긴쥬 스리카미가와'가 최근 완성되어 축하파티가 열렸습니다.



이 날은 술쌀 만들기에 협조했던 지역 어린이들과 외국인들, 지역 관계자 50여명이 모여 이이자카마치에 있는 지은 지 200년이 된 민가에서 술과 식사를 즐기며 일본의 전통놀이인 후쿠와라이와 하네콘츠키를 하며 교류를 도모했습니다. 술시음사는 이 술은 순한 맛으로 조림요리나 시오카라, 나메로우, 굴오일절임 등과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쌀 만들기부터 참여한 한 외국인 참가자는 '시애틀 출신이라 농업은 첫 체험이었고 유니크한 기획에 참가하며 술과 지역과의 특별한 인연을 느끼게



되었어요. 후쿠시마는 아름다운 곳이에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어디를 가도 따뜻하게 맞이해 주어 너무 기뻐요' 라고 말하며 막 완성된 일본술을 만끽했습니다.

피부로 느낀 후쿠시마의 현황

후쿠시마현은 세계의 학생들에게 후쿠시마의 현황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외 협정대학의 학생들을 단기유학생으로 초청해, 현내 각지에서 필드워크를 여는 'Fukushima Ambassadors Program'을 개최합니다. 12회째인 이번회는 스코틀랜드의 그래스고대학에서 학생 15명과 현내 블런티어 학생 4명이 10일간 후쿠시마현의 각 지역을 돌아보면서 농업과 먹을거리의 안전과 연안재해지 현황을 확인하고 피난구역과 후쿠시마 제 1 원전을 시찰했습니다.

그래스고대학에서 커뮤니티를 연구하고 있는 한 학생은 "지진 후의 후쿠시마를 앞으로서 커뮤니티 형성에 필요한 보편적인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참가했습니다. 쓰나미 피해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우에노씨가 말한 지역과 가족에 대한 사명감이나 스피릿에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일본에 오기 전에는 일본 전체가 일치단결로 후쿠시마의 부흥에 착수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에 직접 와 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후쿠시마현의 국내외 활동은 제게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후쿠시마현에 머물면서 피난구역을 제외한 곳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고, 부흥도 진행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국어 부흥정보 '후쿠시마 부흥 스테이션'

후쿠시마현 공식 부흥 관련정보 포털사이트 '후쿠시마 부흥 스테이션'에서는 후쿠시마현 부흥 상황의 최신 데이터와 식품 안전·안심을 위한 활동, 후쿠시마를 응원하는 분들의 활동 등을 9개국어 (일본어·영어·중국어·한국어·독일어·프랑스어·이탈리아어·스페인어·포르투갈어)로 발신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부흥 스테이션 <http://www.pref.fukushima.lg.jp/site/portal-ko/>

외국 출신자를 위한 생활상담창구 안내

본 협회에서는 외국 출신자들을 위해서 외국어로 생활상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영어·중국어·일본어 매주 화요일~토요일
9:00~17:15
 - 한국어·타갈로그어·포르투갈어 목요일
10:00~14:00
- 전화 : 024-524-1316 (상담전용)
E-mail : ask@worldvillage.org (상담전용)

발행자 (공재) 후쿠시마현국제교류협회

우편번호: 960-8103
후쿠시마현 후쿠시마시 후나바초 2-1
☎024-524-1315 FAX 024-521-8308
E-mail info@worldvillage.org
URL <http://www.worldvillage.org>

에서도 수시 정보 발신 중!

Facebook <https://www.facebook.com/fiainfo>
Twitter https://twitter.com/fia_info